

여수 조명연합수군 역사공원 9월 준공

묘도동 도독마을에 108억 들여 2020년 착공...공정률 62% 이순신 등 임란 영웅 조형물 건립



여수시 묘도동 조명연합수군 테마 역사공원 조성 현장.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묘도에 조성 중인 조명연합수군 테마 역사공원 공사 공정률이 62%를 보이고 있다.

여수시는 2020년 9월 착공한 '조명연합수군 테마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오는 9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명연합수군 테마 역사공원은 임진왜란 당시 조명연합수군의 충혼을 기리기 위해 당시 주둔지였던 묘도동 도독마을 일대에 국비 30억원 등 총사업비 108억 원을 투입해 2만3534㎡ 규모로 조성 중이다.

야외공연·축제가 가능한 조명화합마당, 조선과 명나라의 군복, 무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조명 체험마당, 조명연합수군의 상징 조형물이 들어서는 조명기념원 등으로 꾸며진다.

조명기념원에는 조선의 이순신, 송희립 장군, 명나라의 진린 도독과 등자룡 장군 등 임진왜란 당시 영웅들의 조형물이 들어서 역사적인 장소로 의미를 더하게 된다.

조명승전길, 데크 산책로, 어린이 놀이시설, 공

중화장실 등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춰진다.

여수시는 조명연합수군 테마 역사공원을 묘도동 이순신대교와 홍보관, 봉화산 전망공원과 연계해 여수만의 역사와 아름다운 경관을 살린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갈 예정이다.

국내뿐 아니라 명나라 진린 도독, 등자룡 장군을 추모하는 중국 관광객의 새로운 테마 여행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일 공사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과 안전 여부 등을 점검한 권오봉 여수시장은 "한중 화합과 동북아 평화의 새로운 상징이 될 장소라는 생각으로 꼼꼼히 공사를 진행해주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감독자 책임하에 자가진단키트로 매일 검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법 찾는다"

보성군 '주민주도형 마을복지' 풀뿌리 참여자치 사업 추진

주민들이 직접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에 참여하는 풀뿌리 참여자치 사업이 주목을 끈다.

보성군은 마을 문제에 대해 주민이 해답을 찾는 '2022년 주민주도형 마을복지600 사업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계획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마을복지계획 추진단 153명을 구성하고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소통 활동을 펼쳤다.

특히 주민 2289명을 대상으로 3개 분야 12개 항목의 주민 복지 욕구 조사를 해 마을별 소규모 의제를 선정하는 등 주민회의 과정을 거쳤다.

추진단은 농촌 지역 인구 비율이 높은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 19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하기도 했다.

소규모 의제는 건강·복지·주민참여 민관 협력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등을 포함한 행정 전반에 고르게 분포해 있다.

군은 이와 함께 마을복지60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와 교육 자료도 공유한다. 수시로 마을복지600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주민이 스스로 과제를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도 계속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보성군만의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례군, 체육시설 확충에 129억 원 투입

체육진흥 제도·체육시설 정비 5개 분야 20개 과제 선정

구례군이 체육진흥·체육시설 확충에 129억원을 투입한다.

구례군은 올해를 새로운 체육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체육진흥제도와 체육시설 환경정비를 위해서 5개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내용은 ▲체육행사·대회 활성화 ▲미래 우수 체육인재 육성 ▲전국대회 개최 규모화 ▲맞춤형 전지훈련·스포츠대회 유치 ▲수요자 중심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등이다.

군은 체육행사 및 대회 활성화를 위해 46개 체육 종목 단체가 추진하는 76개 대회 개최 및 참가에 6억 3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미래 우수 체육인재 육성 등을 위해 초·중·고 5개교 5개 종목 67명과 체육 우수선수 2명에게 5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을 배치해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스포츠 강자 이용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모화된 6개 전국대회를 유치해 우

수한 자연환경과 스포츠산업 인프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씨씨름의 발상지로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구례전국여자씨름대회와 구례군청 여자씨름단 운영으로 여자씨름의 대외적 입지와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여자씨름을 저변 확대와 스포츠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맞춤형 전지훈련 유치기반 마련과 스포츠 유치활동 강화에 41억 원을 투입한다. 동·하절기 지역경제를 견인할 전지훈련 유치 연인원 3만 명을 목표로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하며 스포츠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대회 유치활동에도 전력을 기울인다.

수요자 중심 공공체육시설(사진) 확충·운영을 위해 43억원을 투입하고, 공설운동장 등 6개소에 19억원을 들여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200여 곳에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의 주기적인 관리해 군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인구 증가로 체육활동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규모화가 절대로 요구된다"며 "예산을 집중해 군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시 폐보도블록

2만5000장 무상 공급 오는 7~8일 신청 접수

순천시가 폐보도블록을 재활용해 시민들에게 무상 공급한다.

순천시는 2019년부터 보도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보도블록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선별, 필요로 하는 시민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는 현재 폐보도블록 2만5000장을 확보, 오는 7~8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신청 접수받아 4월1일부터 신청자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배부 대상은 순천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이나 사무소를 둔 단체로, 세대 또는 단체당 1회(약 300개)로 제한한다.

폐보도블록이 필요한 시민은 순천시 자전거문화센터로 방문해 배부대상 여부, 사용 장소 등 간단한 심사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폐보도블록 수령 시 하차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순천시 도로과 관계자는 "매년 폐보도블록 무상 제공으로 필요한 순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며 "보도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보도블록을 추가로 확보해 배부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로컬 플라마켓 '뚝방마켓' 모습.

곡성군, 노란 뚝방마켓 5일 개장

수공예품 판매·문화공연 열려

곡성군 로컬 플라마켓 '뚝방마켓'이 5일 개장한다.

뚝방마켓은 2016년 주민들을 주축으로 시작했던 플라마켓으로 곡성전을 끼고 뚝방마을 그늘 아래 다양한 수공예품과 먹거리, 문화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마켓이 열리는 약 300m 뚝방 거리에는 매회 평균 60팀 이상의 셀러가 참여할 만큼 규모 있는 마켓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섬진강이 흐르는 깨끗한 곡성군의 장점을 살려 친환경 슬로우 푸드 관련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이 물건을 사지 않아도 지역민들과 여행자들 사이에서 뚝방마켓은 피크닉 장소로도 각광을 받

고 있다. 각종 문화 공연과 전시도 뚝방마켓으로 발길을 이끈다.

문화장터를 표방하는 만큼 지난해 견생조각전, 사생대회, 뚝방라디오 등 매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졌다.

올해도 요가 클래스, 마리오네트 공연, 물 수제 비 뜨기 등 방문객을 즐겁게 할 프로그램들과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뚝방마켓 관계자는 "뚝방마켓은 큰 마음을 먹고 오는 곳도 아니고, 이것저것 복잡한 체비기 필요한 곳도 아니다. 별다른 일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가는 산책길처럼 편안하게 방문해 살가운 강바람에 흔들리며 다가오는 새봄을 맞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수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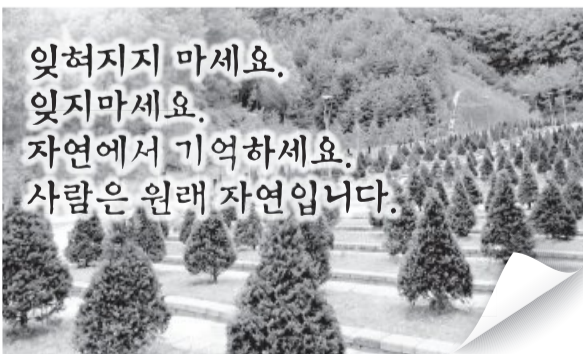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